



2019년 7월, 한국 3대 개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그 잔혹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합심하여 개시장 폐쇄를 추진한 부산 시와 부산 시민들 그리고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단체의 똘심 어린 행보의 결과이자 쾌거입니다. 구포 개시장 사례는 도축, 전시는 물론 지육 판매까지 금지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구 칠성시장, 경주 안강시장 등 아직도 개 도축이 이뤄지고 있는 개시장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름호
2019. 07
NO.43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Special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곰' 한국에서는?

현장에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구포 개(가축)시장

함께 나눔
노량진 수산시장
'동네고양이' 지원 프로젝트



CONTENTS

- 03** **여는 글**
개식용 종식의 포문이 될 재래시장의 개시장 폐쇄
- 04** **Special**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곰' 한국에서는?
- 06** **Special 1**
PROJECT FREE: THE BEAR
- 10** **Special 2**
사육곰도 농장주도 벗어나고 싶다
- 12** **인터뷰**
구포 가축시장을 전 세계 유례없는 동물복지의 도시 사례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 14** **세상 읽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구포 개(가축)시장
- 18**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니다
- 22** **견생역전**
폐가에 갇혀 살던 꿈이

- 23** **입양해주세요**
두려움의 산을 넘고 있는 감몽이의 새 가족이 되어주세요
- 24**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동물자유연대와의 아름다운 동행, <한화갤러리아> 'Right! 갤러리아 콘서트'
- 25** **동자연 활동가 이야기**
제2의 행복이를 위해!
- 26** **함께 나눔**
노랑진 수산시장 '동네고양이' 지원 프로젝트
- 24** **생명 에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안겨준 '희망'이와 '씨앗'이
- 32** **활동 소식**
- 34** **남양주 포토뉴스**
"우리도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 35**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 36** **공익광고**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 2019. 여름호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9년 08월 07일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기획 동물자유연대 **책임 진행** 홍현진

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정유희
편집 신영배, 박주호 **디자인** 신제현 **교정** 강은하 **인쇄** 순환광고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 종이 및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



개식용 종식의 포문이 될 재래시장의 개시장 폐쇄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지난 7월 1일, 부산시와 부산 북구청 그리고 부산 구포 가축시장 상인들이, 가축시장에서 동물을 도살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구포시장 정비사업과 더불어 구포에서는 개 도살 및 개 지육 판매가 말끔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5월 29일, 잠정 협약에 의해 구포 가축시장이 폐쇄될 것이라 알려지면서 동물단체들은 사전 조기 폐업을 유도해 본 협약 열흘 전, 상가 18개 중 7개 업소를 조기 폐업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 재래시장의 개 도살 종식이 가지는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오더군요. 조기 폐업 직후부터 구포 가축시장에 버려지거나 도살해달라고 개인이 데려오는 개들을 즉시 구조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수가 무려 3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그중에는 작은 품종견을 비롯해 어린 강아지도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 '뽀뽀'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키운 누렁이를 잡아먹겠다고 데려오는 이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개들이 개 도살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볼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개 도살장이 폐쇄된다는 것에는, 상식을 뛰어넘은 비정한 잔인성도 함께 종식된다는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조기 폐업을 한 업소의 개들을 살펴보니 그중 몇몇 개들은 건강이 심상치 않았습니. 곧바로 검사를 해보니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홍역과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있더군요. 시장에 전시되었던 모든 개의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구조 직후 집중관리하며 체력과 건강을 호전시키는 중인데, 일부 개들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일부는 홍역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안타까운 일도 생겼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 후, 각지의 개들이 섞여 중개상을 거친 뒤, 시장에서 도살을 대기하던 개들에게서 질병이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가 2017년에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전국 12개 지역에 분포한 재래시장의 업소들에서 채집한 93개의 개 지육 샘플 중 61개 샘플(65.4%)에서 8종의 항생제가 검출된 바 있고, 미생물 배양검사에서는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농장에서 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 항생제 검출률이 높다는 것은 동물 질병 발생률도 높다는 방증입니다. 구포 가축시장에서 구조한 개들의 상태를 보며 재차 확신이 드는 것은, 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하기엔 참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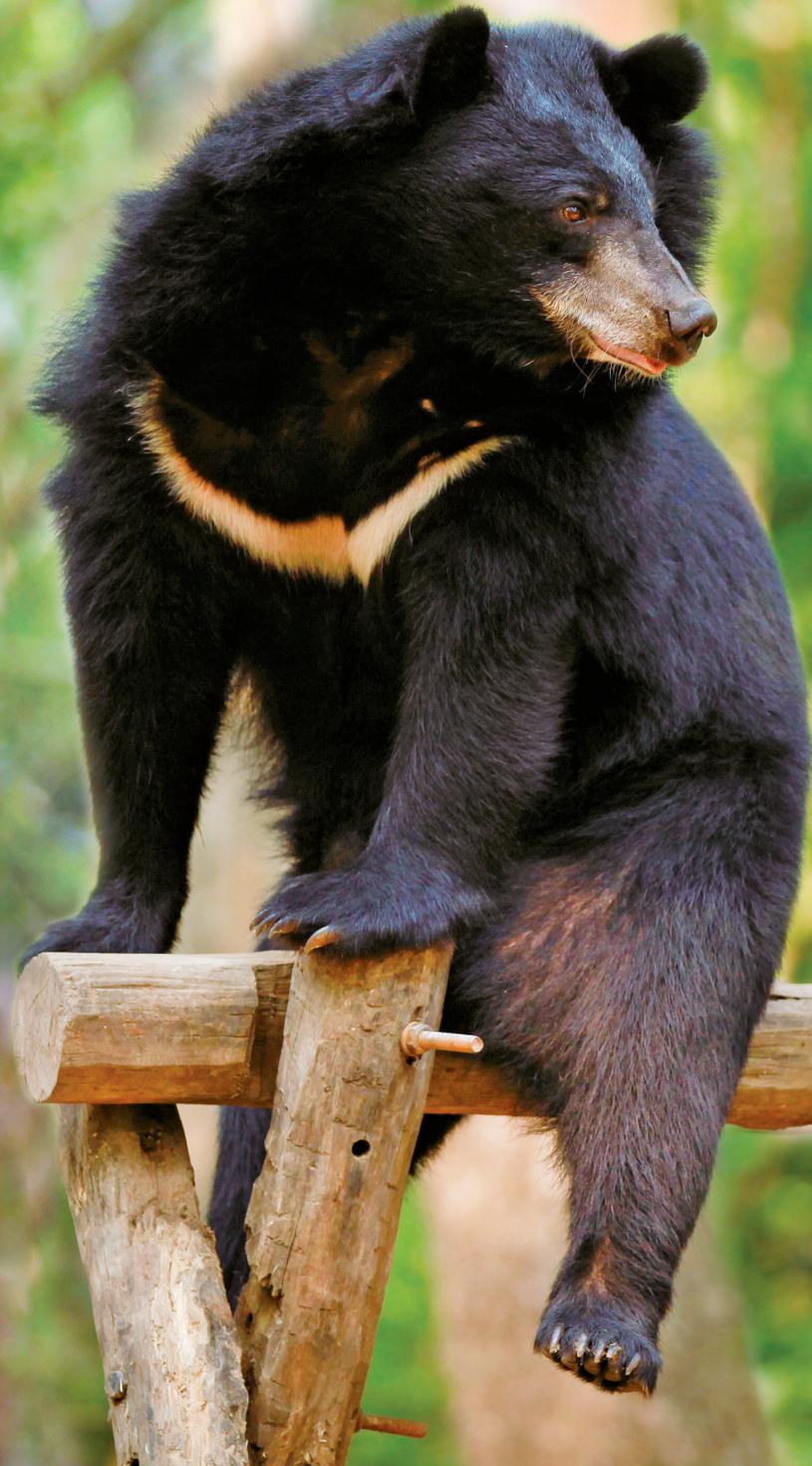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하지만, 후련하다. 자식에게 대물림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잖은가.”

폐업한 상인 몇몇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후련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전업을 앞두고 새로운 사업에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내보이는 상인도 다수가 있었는데, 인지상정이겠지요. 그 상인들이 이 길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초복 날 대구 칠성시장에서 개시장 철폐 집회를 했습니다. 칠성시장은 국내 재래시장의 3대 개시장 중 하나로써 유일하게 개 도살이 남아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동물단체들의 집회가 꾸준히 진행돼왔지만, 상인들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포 개시장 폐쇄에 이은 칠성시장 집회 시엔 상점에서 개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인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개들을 안에 들여놓으며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을 스스로 피한 것이지요.

7월 12일, 동물단체들의 칠성 개시장 철폐 요구 집회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간부 회의를 통해 개시장 정리 방안을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 정서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칠성시장의 붐을 기대하며 동물자유연대는 칠성시장 개시장 폐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곰' 한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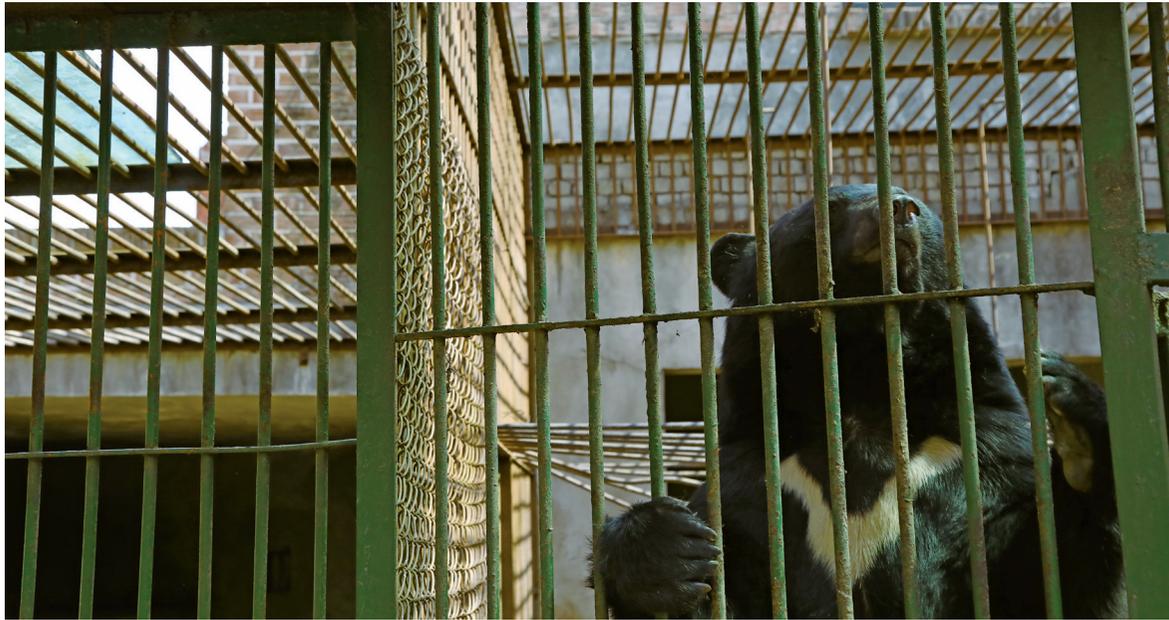
1980년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사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권장했다. 이후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한 국제적 보호 여론과 정책으로 곰의 상업적인 거래가 차단되자 곰들은 좁은 철장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개 사료로 연명하며 살아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무료하고도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고질적인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는 정부에 '생츄어리'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장의 조치로 곰들의 행동풍부화를 위해 시민 서포터스와 함께 해먹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PROJECT FREE: THE BEAR

글 송지성 활동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8월 국내 한 사육곰 농가를 방문했다. 현장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혹했고, ‘곰 지옥’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곰 한 마리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철창에 육중한 크기의 곰들을 대여섯 마리씩 가둬 사육하고 있었고, 곰들은 마실 물조차 없어 기칠고 마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어떤 우리는 물웅덩이가 설치되어 있어 곰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지만, 그 물조차 배설물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곰들이 방치된 채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며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로 이 곰들이 이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사육곰의 비극적인 역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정부는 이런 야생곰 즉, 반달가슴곰들을 1980년대 초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혹은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때부터 해외에서 곰을 들여와 민간에서 곰 사육이 시작되었고, 웅담만 채취하여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보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는 1985년 곰 수입을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합류함으로써 사실상 곰의 상업적인 거래가 차단되었다.

수출이 힘들어지자, 1999년 정부는 곰 사육업을 위해 25년 이상 된 곰 도축을 허용했고, 2005년부터는 번식된 곰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으로 도축 기준을 완화했다. 2014년부터 정부는 곰 증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수술 사업을 시작해 2017년에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한 사육곰을 제외한 다른 개체들은 모두 중성화를 완료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육곰의 개체 수가 더는 늘지 않게 되었고, 웅담의 사회적 수요나 가치 또한 줄게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환경은 살아 있는 사육곰들에게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생지옥의 입구가 되었다.



전국을 돌며 사육곰을 만나다

2018년 8월,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많은 시민이 국민 청원을 통해 사육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정부 부처는 ‘사육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사육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올해 동물자유연대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와 함께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사육곰 농가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곰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루에 적게는 1~2km, 많게는 수백 km까지 움직인다. 때로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때로는 천적으로부터 숨기 위해, 때로는 계절에 적합한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 하루를 바삐 움직이는 것은 동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전국에 있는 사육곰 농가를 방문했을 때 곰들이 살고 있는 사육시설의 대부분은 비좁은 철창이나 시멘트 바닥의 뜬 장소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는 곰들이 자연에서 누려야 할 생태와 습성을 완전히 억압한 모습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육곰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정형행동’이다.

사육곰들이 섭취하는 음식은 각각 농장주들의 의지와 처지에 따라 달랐다. 사육곰들이 음식물 처리 기계로 살아가기도 하고, 폐기된 도넛을 공장에서 공급받아 사육곰들에게 주식으로 급여하는 농가도 있었다. 열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염성 질환이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염분이 많은 잔반을 사육곰들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도넛의 경우 당도가 높아 곰들에게 당뇨병을 유발시키거나 다른 음식을 뒤흔들지 않게 만든다.

반면에 사육곰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개·돼지 사료를 급여해주는 농가도 있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은 천성적으로 나무를 잘 타며, 그 능력을 살려 새순과 열매, 과일 등을 먹으며, 먹고 남은 나뭇가지는 부러트리고 쌓아서 그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 서식하는 삼림과 계절에 따라 새순, 오디, 산딸기, 돌배 등 다양한 식물성 먹이를 먹어야 하는 본래의 습성을 지닌 곰들에게 하루에 한두 번만 급여하는 사료는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다.



사육곰들의 행동풍부화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선물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알리고 정부에 사육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시민서포터즈 ‘곰벤저스’를 모집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육곰의 역사 및 현황과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가 그동안 함께한 현장조사의 결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재능과 장기에 따라 각각 그룹을 형성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했다. 이후 현장에서 비좁은 철장에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사육곰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폐소방호스를 재활용한 ‘해먹’을 제작했다. ‘해먹’은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에게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자연에서 보이는 행동을 유도해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렇기에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도 하는 야생곰들의 습성을 고려해 만든 해먹은, 10년 이상 좁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정형행동만 보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육곰들에게 작지만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곰벤저스 일원들도 해먹에 올라가 낮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곰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해먹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사육곰 농가를 방문해 완성된 해먹을 설치하고, 곰들이 좋아할 단호박 특식을 선물했다.

곰들이 설치된 해먹을 만난 순간, 처음 본 해먹이 신기한 듯 잡아당기고 입으로 물어뜯으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호기심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먹을 이리저리 손으로 흔들기 시작했고, 흔들리는 해먹에 올라가 의지하며 타고 놀기 시작했다. 해먹을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곰들이 과연 해먹을 잘 사용할지 우려되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영특한 곰들은 해먹 사용법을 단 몇 분 만에 터득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편안하게

해먹을 이용하는 곰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시간만큼은 죽음을 앞에 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곰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조차 누릴 수 없는 많은 사육곰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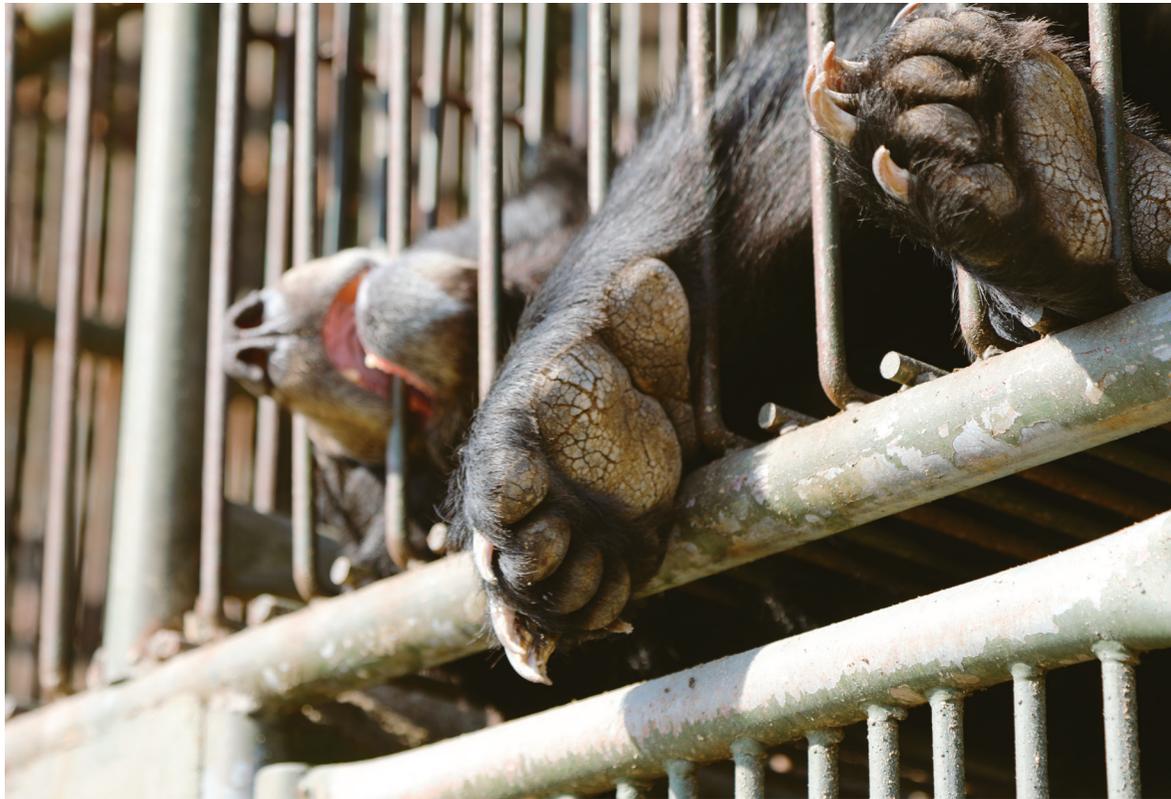
사육곰을 위한 보금자리

지난 6월 경기도 안성시에 한 곰 사육 농가에서 반달곰 한 마리가 탈출하고 20여 분 만에 포획됐다. 탈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날 같은 지역 야영장에 곰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고, 소방당국은 환경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뒤 업체들을 동원해 이 곰을 사살했다. 이 곰 역시 같은 농장에서 탈출한 곰이다. 포획당한 곰은 다시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지도 못하는 감옥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사살된 곰은 긴 시간 겪었던 고통을 죽음으로 끝내야만 했다. 곰들에게는 어딜 가도 고통 아니면 죽음뿐이었다. 현재도 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520여 마리의 사육곰들이, 시장의 몰락으로 인해 관리에 손을 놓은 사육곰 농가와 뒷짐만 진 채 해당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와 관계부처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과 시행 그리고 해당 문제의 재방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참혹한 비극을 겪었던 사육곰들이 본연의 이름인 반달가슴곰으로 자유롭게 더 넓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육곰도 농장주도 벗어나고 싶다

글 채일택 팀장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리라.’ 사육곰 농가 현장조사에서 만난 곰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생명의 활력이 빠져나간 듯 초점 잃은 눈으로 종일 할 일 없이 누워 있는 곰들. 곰들이 지내는 공간의 환경도 참혹하다. 많은 농가에서 청소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뜰장에서 곰들을 사육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주는 풀, 새순, 열매와 과일 대신 악취를 참아가며 삼켜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좁은 뜰장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 역시 곰들에게는 고통이다. 분명한 것은 곰들이 지내는 농장이 곰들에게 결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곰들을 가두고 있는 농장주들도 다른 관점에서 농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기는 마찬가지. 사육곰을 키우는 전국 30여 농가 중, 극히 일부는 곰을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수의 농가는 웅담값 폭락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난색 표하는 정부, 문제해결에 미온적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여 년간 환경부에 사육곰 문제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981년 산림청에서 농가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개인이 야생곰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한 원죄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가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육곰의 증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를 골자로 한 ‘사육곰관리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사업이 사육곰 문제에 있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듯, 고통받는 곰의 수가 늘지 않았을 뿐,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준 것은 전혀 아니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계속해서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당시 보상금 지급이 끝났으며,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2010년 홍희덕 전 의원이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당시 환경부는 현황 파악 선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입법을 반대한 전력이 있고, 모든 개체가 중성화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적극적으로 사육곰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

‘사육곰 생츄어리’ 실현 가능할까?

사육곰 문제해결을 위해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생츄어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보신 문화로 인해 웅담 채취용 곰을 사육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도 이미 사육곰 생츄어리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의 청두 곰 생츄어리의 경우 사육곰을 위한 세계 최초의 생츄어리로, 애니멀스 아시아(Animals Asia)가 2000년 중국 정부로부터 버려진 야생동물 생츄어리 부지를 제공받아 63마리의 구조된 곰으로 생츄어리를 시작했다. 현재는 11개의 사육동에서 25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이루고 있다. 역시 애니멀스 아시아가 운영 중인 베트남 생츄어리는, 정부에서 무상 제공한 11ha(11,000m)에 이르는 부지에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갖추고 있으며, 행동풍부화를 위한 놀이기구 등을 제작해 곰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용 가능 개체는 200여 마리이며, 현재 180여 마리를 수용 중이다. 또한, 프리 더 베이스에서 운영 중인 캣 락 국립공원 생츄어리 역시 베트남 정부가 국립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건립되었다. 이곳은 곰들에게 자연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사육곰 생츄어리는 건립과 운영이 결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며,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의지 문제라 할 수 있다.

특별법제정으로 돌파구 모색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경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므로 굳이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거나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부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농가 전폐업 지원과 생츄어리 건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준비 중이다. 구상 중인 특별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나는 사육곰의 구조 및 농가의 전폐업을 위한 지원내용이다. 사육 농가들은 ‘정부의 사육곰 재수출 장려정책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정부 정책의 변화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입과 수출을 막은 이후에도 사육 농가들은 자체번식을 통해 개체를 늘려다 2000년대 들어 웅담 가격이 폭락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을 온전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사육곰들의 고통이 최소 수십 년은 계속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농가들이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구조된 곰들의 보호를 위한 생츄어리 건립과 운영을 위한 내용도 필요하다.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문을 닫거나 폐쇄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곰들의 잔여 수명이 길게는 30년 이상으로 예상돼 해당 기간 동안 민간영역에서 생츄어리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사육곰 관련 산업을 종식하고, 곰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츄어리 운영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입할 수밖에 없다.

물론 특별법제정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농가들이 보상안에 불만을 갖고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농가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애완용으로 계속 키우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적어도 많은 사육곰들이 케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된다.

사육곰 문제는 수십 년을 이어온 역사만 보더라도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죽지 못해 살아온 곰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렵더라도 우리 사회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구포 가축시장을 전 세계 유례없는 동물복지의 도시 사례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 구포 가축시장 완전폐쇄를 이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 정리 심인섭 팀장

대한민국의 3대 개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2019년 7월, 드디어 잔혹한 그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능케 한 많은 사람 중, 특히 구포 가축시장 폐쇄를 위한 도시계획 설계를 시작으로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뚝심 어린 행정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든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님을 만나 그 의의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먼저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취임하신 이후 여러 가지 산재한 부산시 과제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해 당사자들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부산시정이 출범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부산은 23년 만에 정치세력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변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여망이 이뤄낸 결과라 생각해요.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라는 것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생명과 환경의 가치, 노동의 가치, 나보다 약한 존재를 억압하지 않는 정의로움의 가치들이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간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을 부산시정에 접목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반려견 핫, 루비

얼마 전 TV 방송을 계기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입양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유기견 입장에서는 입양이 아니면 곧 죽을 운명에 처해진다는 점에 직급을 떠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려면 시장인 제가 먼저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 사랑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입양률 또한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양을 결심하게 됐어요.

구포 가축시장은 그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었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동물도살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구포 가축시장이 2019년 7월 1일부터 정비에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으로 정비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난 60년간 동물 학대의 온상지이자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구포 가축시장이 덕천역세권 업무·상가와 함께 동물복지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와 시장상인, 북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예요. 구포 가축시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설에 국비 60억 원 확보를 계기로 총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시설·소공원·시민 동물복지·휴식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에요.

기존 가축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인들과의 협상에서 주력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포 가축시장 폐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지만, 구포 가축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자 노력했어요. 특히, 오랜 시간 해오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도울 수 있는 여러 정책, 창업지도, 경영컨설팅 등의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왕 구포 가축시장을 폐쇄하기로 한 마당에 가능하다면 국민의 공감도 이끌어내고,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초복 이전에’ 폐쇄될 수 있게끔 상인들에게 협조를 요청드렸어요.

이번 구포 가축시장의 정비는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7월 11일부터는 지육의 유통마저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개시장의 완전폐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에 관해 자평하신다면?

이번 사업은 동물 학대 집단구역을 일제히 정비하는 모범사례이자 이후 부산시 북구가 동물복지의 중심이자 혁신 1번지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역사적 의미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구포 가축시장 정비뿐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나서고 있는 등, 친동물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시의 동물 정책 방향이나 추진 예정인 동물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부산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부산!’ 슬로건 실천을 위한 장기적 노력을 할 시점으로 현재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물보호·복지의식 수준을 제고(提高)하고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 예로 직영 반려동물복지센터,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관련학과 신설 지원으로 청년 체감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산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 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도모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따로 생각하기 힘든 상호간의 존재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삶>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포 가축시장을 동물복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징성 있는 동물복지의 도시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 독자들과 시민들의 노력의 결실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구포 개(가축)시장

글 심인섭 팀장



2018년 9월 부산시청 부산시, 북구청, 국회의원 전체 회의

지난 60여 년간, 동물 학대의 온상이자 술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구포 개(가축)시장이 완전 철폐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포 개시장이 폐쇄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활동가가 그 기록을 역사에 남깁니다.

Chapter 1. 개장사 그만두고 싶다

그간 복날마다 구포에서 행해졌던 개식용 반대 시위가 복날 시즌에만 이슈화되고 마는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에, 구포 개시장 상인회장이 ‘개장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상인회장의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자 2017년 5월 23일 부산북구청에서 상인회장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 북구청 경제진흥과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장이 주장한 폐업을 전제로 한 상인들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고, 그 요구안은 외국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한다는 한 외국인의 꾀에 빠진 상인들의 무모한 요구라 판단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담회에서 상인회장이 요구하는 무리한 보상안을 제외하고는 구포 개시장을 철폐할 수 있는 행정적,

정치적인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포 가축시장 전체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을 통해 정치권 등에 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분을 안겨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Chapter 2. 부산시, 북구청, 정당의 개시장 철폐 TF

구포 개시장 철폐를 위한 3가지 TF 구축, 당시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2017년 5월 26일, 제일 먼저 북구청장과 면담하고 북구청 TF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당시의 북구청장은 TF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게 TF가 설치되리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29일 민주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정당 차원의 TF 구축을 제안했고, 11월 13일 민주당 TF 관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에는 개시장 상인회와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마침내 2018년 12월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구포 개시장 업종전환 TF단이 공식 발족합니다. 부산시에 TF가 만들어지면 개시장 폐쇄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듬해 치러질 지방선거 때문에 시점을 조금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Chapter 3. 도축장 탈출 개를 울무에 묶어 끌고 가는 동영상 그리고 오선이 사건

2017년 8월 중순, 구포 개시장 내 도축장을 탈출한 개를 도로에서 울무로 포획 후 잔인하게 끌고 가는 동영상이 공개됩니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이웃이 키우던 리트리버를 유인해 구포 개시장으로 데리고 간 후 죽인 일명 ‘오선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구포 개시장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고 개시장의 잔혹성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지만 개시장 철폐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년 9월 14일 북구청은 구포 개(가축)시장 정비를 위한 TF팀 발족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Chapter 4.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북구청은 성난 여론에 밀려 북구청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서 3선을 목표로 한 당시 구청장과 재선을 목표로 한 당시 부산시장은 구포 개시장 철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하는 현 북구청장과 부산시장도 구포 개시장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민주당의 구포 개시장 업종전환 TF 단장이 현재의 북구청장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그림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포 개시장이 결국 사라질 운명이었다고 느껴진 일화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캠프에 동물 관련 공약을 제안하면서 당시 캠프 책임자의 구포 개시장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이제껏 여느 정치인들에게는 보지 못했던 것으로, 선거 이후 제가 그리던 그림의 마지막 퍼즐(부산시 TF)이 완성되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Chapter 5. 부산시의 전사적인 노력, 구청과 국회의원 그리고 동물자유연대의 협력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시장과 구청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현 부산시장인 오거돈 시장이 이끄는 부산시는 2018년 7월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도시계획실에 구포 가축시장 철폐에 대한 밑그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8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 관련 부서 전체(정책보좌관, 도시계획과, 예산부서, 택시운수과, 동물복지지원단, 중소기업인지원과 등)와 북구청장, 북강서갑 국회의원, 동물자유연대가 모여 비공개로 ‘구포 가축시장



구포시장 뜬장안의 개들을 진정시키며 구조하고 있는 활동가들

정비사업'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동물자유연대는 도시계획실이 그려온 밑그림에 개상인회 전업 공간 마련을 위한 상가시설 추가를 건의했고, 이것이 반영되어 전체 199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포 가축시장 정비사업'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Chapter 6. 구포개시장 상인회와 동물보호단체

평소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 한 테이블 위에서 수십 차례 만났습니다. 늘 긴장 관계 속에 대립과 반목을 해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출발점은 달랐으나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포 개시장의 완전한 철폐. 목표 달성을 위해 개시장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단체대로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관계기관과의 협상과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날카롭게 돌변하여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협상을 마치고 순조롭게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난한 세월을 오로지 목표 하나만 보고 참고 달려왔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손을 내저을 때, 상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7곳의 조기 폐업과 수십 마리의 개들을 구조했습니다. 비록, 모든 개를 다 구조하지 못했지만, 한 마리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축장 시설 봉인을 위해 어두컴컴한 도축장에 들어가는 순간의 그 먹먹했던 감정은 아직도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Chapter 7. 지방자치단체들이여 부산 구포 개시장을 벤치마킹하라

부산광역시의 구포 개시장 철폐를 위한 전략에는, 개시장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행정력으로 개시장 철



01 2017년 12월 부산시의회 민주당 구포개시장업종전환TF단 발족식 02-03 2019년 6월 조기폐업 후 봉인된 도축장비



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디딤돌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인들의 보상을 포함한 모든 선행 조건들이 불법적이거나 편법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 있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남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의 대규모의 도축과 전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옥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구포 개시장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지옥의 판매마저 완전금지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간 무수한 협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시행되는 사례인 만큼, 칠성시장을 두고 있는 대구시나 안강시장이 있는 경주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가 구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하루빨리 개시장이 있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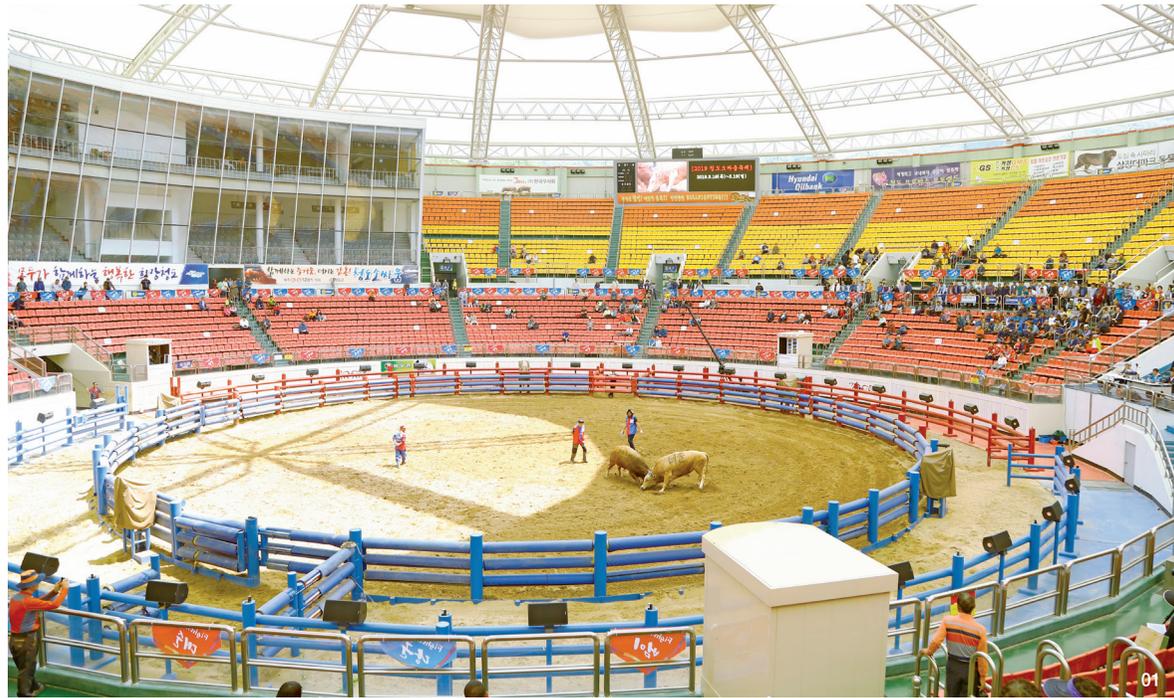
Epilogue

2019년 7월 1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날입니다. 구포 개시장 철폐를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힘을 한 곳에 모아 왔습니다. 2017년 5월, 북구청장 면담을 위해 모인 그 기억을 시작으로 매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도축될 수만, 수십만 마리 개들의 생명을 살렸고, 앞으로 이 땅에 개식용을 없앨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구포 개시장 철폐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지만, 이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구포에서 무수히 쓰러져간 많은 동물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사라져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니다

- 2019 청도 소싸움 개최식 1인 시위를 다녀와서

글 강정미 활동가



동물자유연대가 2019년 새롭게 시작한 캠페인 '예산깎깎소'는 전국의 지자체의 소싸움 예산을 삭감하자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올해 동물관련 이슈로 소싸움이 새롭게 떠올랐다. 소싸움은 현재 전국 11개 지자체, 청도군, 달성군, 보은군, 완주군, 정읍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뾰족한 특화 사업이 없는 지방 지자체에서는 소싸움을 대대적인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 소싸움의 메카, 청도

대구에서 차로 약 40분이 걸리는 청도군은 우리나라 소싸움의 메카라 할 수 있다. 청도 소싸움은 다른 지자체의 '민속 소싸움'과 달리 '전통 소싸움'으로 인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소싸움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청도에서 지난 5월 16일, 2019년 소싸움이 개막되었다. 청도 소싸움장 근처 도로변 휘날리는 화려한 배너가 소싸움 개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소싸움장에 도착하니 청도군 토산품을 홍보하고 있고, 각종 먹거리가 가득하다. 어느 지역 축제장과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아직 개최식이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경기장 안팎으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경기장 안에서는 이미 체급별 소싸움이 진행 중이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은 관람석이 둘러싸고 있는 모래밭에서 황소 두 마리가 이마를 맞대고 대치 중이었다. 스피커로 나오는 해설가의 찌렁찌렁한 목소리는 '소가 들



01 누구도 관심 없는 경기장에서 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강요당한다. 02-03 코뚜레 낀 코가 심하게 당겨질 때까지 싸우지 않고 버티는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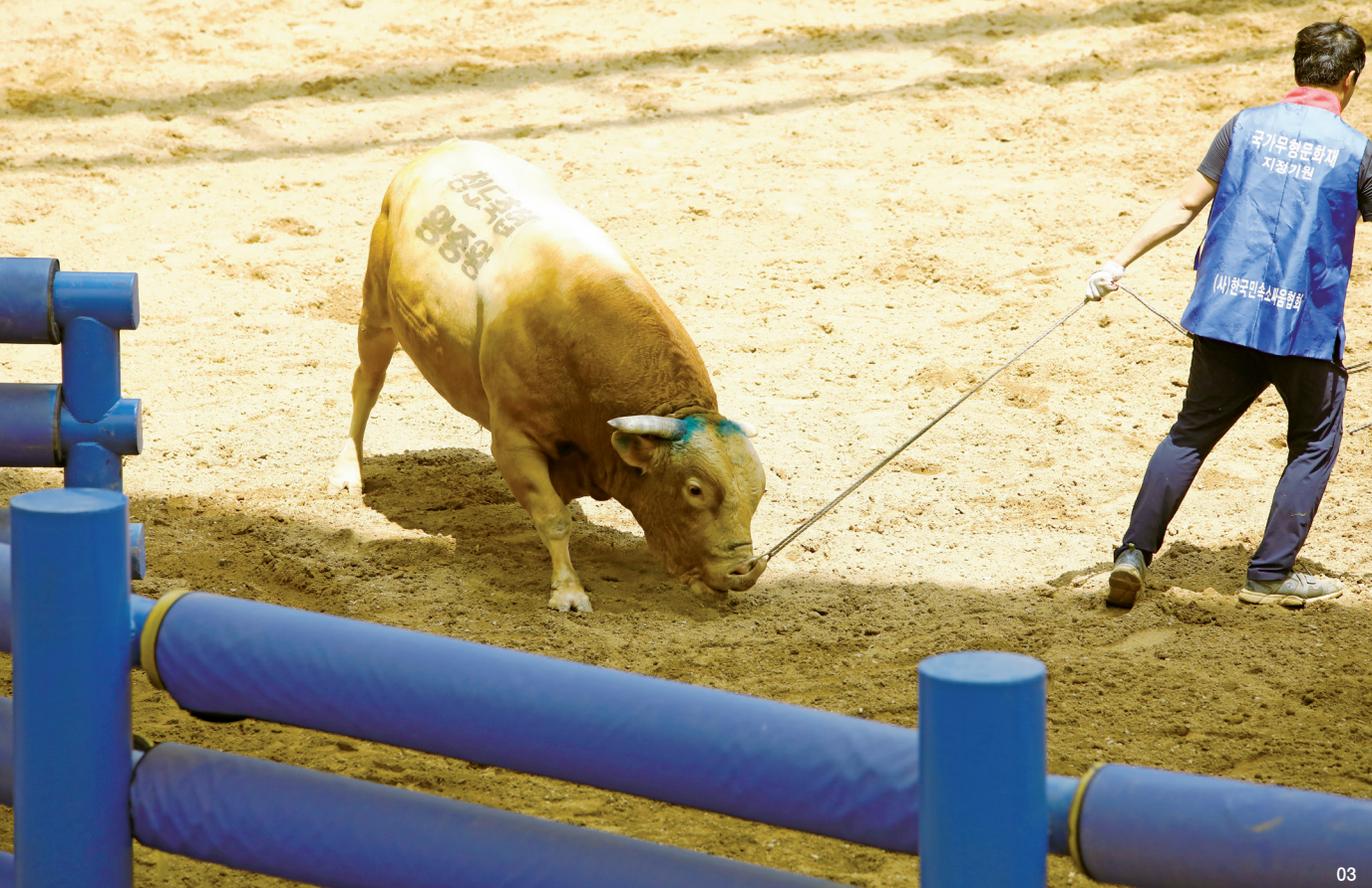
배지기 기술을 사용했다', '싸움소는 싸움을 할수록 싸움기술을 배워간다'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 추임새로 소싸움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인간 찌름의 들배지기를 어떻게 소가 한다는 말인가. 소가 싸움을 통해 싸움기술을 배워간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소싸움장을 둘러싼 관람석에 앉은 사람들은 소싸움을 본 다기보다는, 30도가 넘는 그날의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더운 날 황소 두 마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들 자신도 원하지 않는 싸움판에서 혹사당하고 있었다.

지역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 동물 체험

경기장 밖은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할 것으로 가득했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부터 축제를 운영하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소싸움 경기만 아니었다면, 즐겁게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어느 지역 축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또한 여전히 볼 수 있었다. 30도를 넘나드는 그날 소달구지 체험과 소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소 두 마리가 끌려 나와 축제장에 한쪽에 묶여 있었다. 다행히 그늘막과 약간의 물이 제공돼 있었다. 지역 축제에 동물을 동원하는 일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흔히 발생하는 학대 행위이다. 작년 겨울 동물자유연대는 '지역 축제장에서 염소가 새끼를 출산했는데 운영하는 사람은 이를 방관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동물은, 특히 예민한 초식동물은 소란스럽고 낮은 환경의 축제장에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다. 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대부분 알듯, 먹이 주기 체험을 위해서는 동물을 굶겨 행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연출한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허겁지겁 먹이를 받아먹는 동물들을 보면서 도저히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은 소가 받고, 돈은 사람이 벌고

청도 소싸움에서는 '우권(牛券)'을 구매해야 베팅이 가능하다. 곧 싸우는 소들을 두고 도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



03



04

04 동물자유연대의 1인 시위 모습.

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 지하 1층에는 우권 판매소가 있으며, 각종 주의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방문한 날에는 우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 창구가 닫혀 있었고, 우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세치기 금지’, ‘욕설을 하는 경우 우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우권을 판매하면 이곳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될지 예상할 수 있는 문구들이 붙어 있었다. 싸울 이유가 없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소를 ‘소싸움’이라는 고통 속에 밀어 넣고 인간의 사행심과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소싸움장이 아닌,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유세장

사람들이 속속 소싸움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동이 편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의 부축을 받으며 소싸움장으로 입장했다. 개막식이 시작될 무렵, 번듯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사람이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입구로 들어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었다. 그는 따뜻한 표정으로 소싸움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하나 하나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청도군수가 지하를 통해 소싸움장으로 입장했다. 소싸움장 안에서 개회식을 시작하는 것이다. 개회식 VIP석에는 이승을 청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윤환 문경시장·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백선기 칠곡군수,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박기호 청도군의회 의장, 박기환 청도투우협회장 등이 환영받으며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관객석에는 청도군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소싸움 개막식이라기보다 소싸움 개막식을 빙자한 지역 유지들의 정치적 위상 강화와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 같은 느낌이었다.

1인 시위, 별다르지 않은 반응

개막식 1시간 전부터 소싸움장 정문 바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오가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빙그레 미소를 짓는 사람, 노려보는 사람, 욕을 하고 가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가는 사람, 소싸움이 왜 학대냐고 질문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1인 시위에 관심을 가졌으며, 방송국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마도 소싸움은 청도군의 가장 큰 행사일 텐데,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일면 흥분되고, 일면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청도군민들의 반응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심지어 함께했던 활동가에게 시원한 음료를 사주며, 나도 사실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히신 분도 있었다.

소싸움, 석전처럼 사라지길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하던 ‘석전’이라는 놀이가 있다. 최초의 기록은 <수서(隋書)> 중,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 놀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편을 갈라 서로 돌(石)을 던지며 상대방을 공격해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이다. 신년 맞이 행사였으며, 전쟁기술을 익히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석전은 삼국 시대, 고려 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시행된 석전은 그 잔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시대마다 찬반논의가 격렬했으며, 근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석전의 잔인함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지금, 우리나라 어느 누가 석전을 전통이라 주장하고 이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전통이란 본받아 배울 가치가 있는 과거에 내리는 훈장이다.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소싸움이 과거 언제부터 시작되었든, 소싸움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없다. 본받을 것도 없다. 소싸움도 석전과 같이 곧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잔인한 놀이’로 사라지길 바란다.



폐가에 갇혀 살던 꿈이

글 조성진 활동가

재개발로 빈집이 군데군데 있던 한 폐가촌, 대문이 잠겨 있는 한 빈집에 여러 마리 개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 죽었을지 모를 유골도 발견되었습니다. 집 안은 거미줄과 곰팡이, 흙먼지가 가득하여 숨쉬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7마리 천사들은 암흑을 뚫고 무사히 구조되었고 꿈이는 그중 한 친구였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성격을 가진 꿈이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친구였지만, 한쪽 눈의 장애와 혼혈견이라는 이유로 입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꿈이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꿈이를 평생 가족으로 맞이해주신 입양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입양자 박선희 님 인터뷰>



꿈이를 입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년 전 회사 주차장에서 다친 고양이를 치료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이 두 마리의 집사가 됐어요. 그 후, 동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고, 길냥이와 유기견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가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물자유연대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강아지와 냥이를 함께 키우는 가정에 대해 얘기를 듣고 입양을 결심하게 되면서, 동물자유연대에서 제게 꿈이를 소개해주었어요. 몇 차례 꿈이와 만나면서 아이의 진중한 성격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임시보호를 거쳐 입양까지 이르게 됐어요.

꿈이를 입양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나요?

꿈이를 맞이하기 위해 집 안 환경도 바꾸고, 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꿈이 역시 센터에서의 우직하고 조용했던 성격과 달리 자기주장이 강한 고집스러운 성격을 보였고, 무엇보다 제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 꿈이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꿈이를 다그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늦은 저녁 시간에 꿈이와 산책을 하는데, 꿈이가 평소와 다르게 밝게 뛰어다니더라고요. 한참을 먼저 앞서가던 녀석이 갑자기 뒤돌아서 저를 보더니 빨리 오라며 재촉하는 행동을 보이고, 제가 다가서면 격하게 꼬리를 흔들며 제 품으로 안겼어요. 그 순간, 꿈이도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원하는 대로 성급하게 따라와주기를 바랐던 지난 3개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꿈이가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제 마음만 앞서서 배려하는 것을 잊은 거죠. 그런 환경에서도 스스로 적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 꿈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꿈이를 입양하신 후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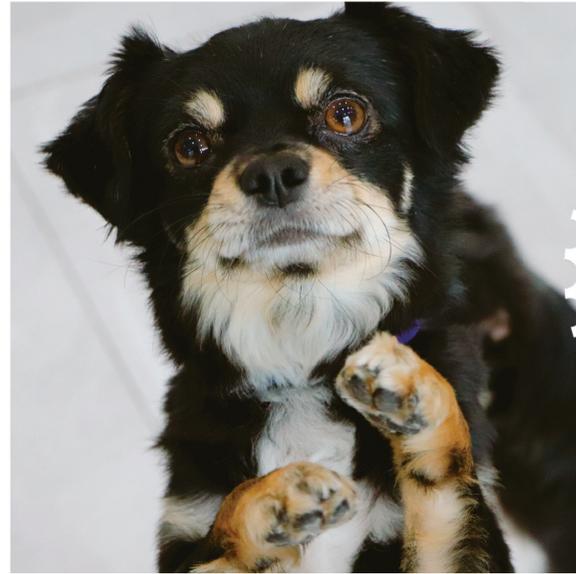
두 마리의 냥이들은 집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저 역시 직장과 집을 오가며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꿈이를 입양한 후, 제 활동 영역이 넓어졌고, 외출을 자주 하는 생활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퇴근 후, 꿈이와 함께 산책하다 보면 복잡했던 회사 일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가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꿈이가 산책하는 걸 싫어하는데, 되려 제가 더 산책하자고 꿈이한테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요.(웃음)

동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경험자로서 조언해주신다면?

강아지와 고양이 중, 손이 덜 가는 동물은 없어요. 성격은 모두 제각각이며 아이들의 모든 행동 하나 하나는 본능에 충실한 의사 표현이죠. 본능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관계가 좋아진다는 걸 꼭 말하고 싶어요. 애완동물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아이들의 의사 표현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면 좋겠어요. 더불어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기까지 오랜 시간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꿈이를 통해 배웠는데요, 인내와 배려심을 갖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주지만 했던 사랑이 어느 순간 주고받을 수 있는 행복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두려움의 산을 넘고 있는 깜뽕이의 새 가족이 되어주세요

글 이민주 활동가



치와와 / 2~3세 추정 / 여 / 건강함

2019년 1월, 동물자유연대는 오물로 가득한 불법 번식장에서 개 6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생활하던 개들은 피부병에 걸리거나 다리를 절고, 시력을 잃는 등 상태가 몹시 안 좋았고, 다쳐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깜뽕이는 이때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당시엔 겁이 많아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구석에 숨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입소한 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조 당시 심장사상충에도 감염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치료가 끝나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뽕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과의 교감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사람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활동가에게 꼬리를 격하게 흔들며 반겨주기도 합니다. 깜뽕이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깜뽕이는 느린 발걸음으로 두려움의 산을 넘고 있습니다. 때로는 깜뽕이의 앞에서 이끌려주고, 때로는 깜뽕이의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줄 가족이 있다면 깜뽕이의 단한 마음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땐 깜뽕이도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에 둘러싸인 깜뽕이와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줄 가족을 기다립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아직은 서투른 깜뽕이와 서두르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분, 어디 계신가요?



동물자유연대와의 아름다운 동행, 〈한화갤러리아〉 ‘Right! 갤러리아 콘서트’

인터뷰·정리 홍승민 팀장

2019년 5월 한 달간 대전, 수원, 천안, 진주에서 ‘Right! 갤러리아’라는 이름으로 〈한화갤러리아〉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 행사에서 〈한화갤러리아〉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파트너로 동물자유연대가 함께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고객들이 동물자유연대에게 기부하는 금액의 동일한 액수를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 후원을 진행했는데,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한화갤러리아〉의 나소민 대리님을 만나 이번 행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백화점, 유통, 판매 회사인데 어떻게 ‘Right! 갤러리아 콘서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패션/유통/식품 업계별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강조하는 추세예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가치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화갤러리아〉도 고객과 함께 미래를 위한 바른 가치의 실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제고(提高)하고 전파하는 브랜드 차별화 측면에서도 필수라고 판단했지요.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한화갤러리아〉는 2019년부터 환경보호/생명존중/안전문화와 관련된 전사 통합 캠페인 ‘Right! 갤러리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Right! 갤러리아 콘서트’ 역시 ‘Right! 갤러리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수고객님을 초청해 콘서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매칭 그랜트의 방식으로 기부를 진행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이예요.

이번 〈한화갤러리아〉 콘서트에 동물자유연대를 파트너로 초청하게 된 계기와 동물자유연대와의 인연도 궁금합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파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초, 파란 봉사단에서 ‘메리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동물자유연대와의 첫 인연이 시작됐어요. 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유기동물 입양문화 선도 등 우리 사회 다방면으로 동물권 운동을 위해 힘쓰는 동물자유연대의 활동들은 ‘Right! 갤러리아’가 추구하는 생명존중의 가치와 그 뜻이 일치해요. 해서 ‘Right! 갤러리아 콘서트’ 제안서와 함께 파트너십을 제안드리게 되었고, 흔쾌히 승낙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한 번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Right! 갤러리아 콘서트’를 네 차례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을 반려동물로 맞이하게 됐다는 한 고객님께서 ‘초청받아 온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더라며 기분 좋게 기부를 하고 콘서트장에 들어가셨어요. 이를 보며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분께서 동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좋은 일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동물자유연대와 이번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콘서트는 우수고객을 초청해 진행한 행사라, 기부에 관심 있는 고객님들이 모인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콘서트를 거듭하며 단순히 기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됐어요.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결국엔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해요. 이번 동물자유연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우리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참을 장려하는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을 보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사회 전반을 바꾸고, 진정한 가치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제2의 행복이를 위해!

글 손이슬 활동가



동물자유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한 지 꼭 2년이 되어간다. 사회변화팀 ‘나눔사업’ 부서로 발령받고 입사한 첫날, 처음으로 제보자와 통화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보자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말할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며 덜덜 떨리는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붙잡고 안내했던 그때의 내가 문득 생각나곤 한다.

내가 속해 있는 나눔사업 부서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위기 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시민협업체와 구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길고양이 TNR부터 구조 동물 치료비 지원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캣맘협업체 지원사업 ‘캣동지’까지,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따뜻한 일이다. 나눔사업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동구협(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한 ‘행복이라는 고양이의 이야기다. 동네 주민이 우연히 교통사고 당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보호소로 가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시보호소는 운영 여건상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시보호소의 여건을 알게 된 제보자는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고, 나눔사업 부서의 캣맘협의체 네트워크망을 통해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 비록 그 사고로 인해 고양이는 두 눈을 잃었지만, ‘행복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1년 만에 평생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생명을 놓치지 않은 제보자와 장애를 가진 행복이를 기꺼이 안아준 캣맘협의체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쉬운 직업은 없다. 그중 동물보호 활동가는 사랑하는 동물들을 위해 일하는 와중에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벽 같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바라보며 좌절하기도 한다. 그래도 언젠가 바뀌리라 믿는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2의 행복이를 만들고 있고, 난 그들을 기꺼이 도울 테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동네고양이' 지원 프로젝트



글 손이슬 활동가

동물자유연대 & 동네고양이 서울연대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시 최대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이며, 1971년 지금의 노량진으로 이전한 이후 48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동네고양이'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구시장이 점차 철거되고, 수산시장 상인과 수협 간의 오랜 갈등으로 상인들은 물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길고양이들까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고양이들이 위협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동물자유연대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 2019년 5월 10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네고양이 서울연대'와 중앙대학교 동아리 '냥침반'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과 치료, 입양지원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노량진 수산시장 '흑곰파' 땅콩 수거大作전

5월 17~18일, 서울시 TNR(Trap Neuter Return: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DAY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동물자유연대와 동네고양이 서울연대가 사진답사를 진행했을 때 검은색 고양이들이 유난히 많아 한참을 찾아보니, 검은색 페르시안 혼종이 중성화수술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딱 봐도 기골이 장대하고 늙은 것이 수컷이 확실했다. 그런데 어찌나 빠르니 녀석을 카메라에 담기 힘들 정도였다. 캣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포획틀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피해 다녀 몇 년째 중성화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검은색 동네고양이를 '흑곰파'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번엔 기필코 포획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역시나 포획은 쉽지 않았다. 포획틀을 설치한 곳을 피해 다니고, 활동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포획틀 위에 올라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첨단 장비(!)와 캣맘들의 노련함을 흑곰파 대장도 이길 순 없었나 보다. 포획 시도 2일 만에 흑곰파 대장과 그 무리는 모두 연행(?)되어 땅콩을 수거당했다. '이제 흑곰파도 그 수가 줄어들겠지' 생각하니 웃음도 나고 무분별한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될 암컷 고양이들이 생각나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다.

수산시장 길고양이에서 '동네고양이'로

현재까지(6월 중순 기준) 중성화수술과 구내염, 골절 치료 등 20마리의 동네고양이들의 포획과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시장 동네고양이들과 노령 고양이, 다친 고양이들이 많이 남아 있다.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선별포획'이 필요하지만, 구시장 뒤쪽은 상점을 비추던 가로등도 이제 없고, 바닥엔 깨진 유리조각과 식기들, 부탄가스와 술병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구시장 주변에서 캣맘협의체와 동물단체를 주시하고 촬영을 저지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로 인해 사진 촬영은 커녕 활동가들의 안전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획틀을 설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아픈 고양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와 동네고양이 서울연대는 노량진 수산시장 동네고양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노량진 수산시장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우리네 친구 동네고양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사람들에게 귀찮거나 조금은 불편한 일이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오늘도 살기 위해 애쓰는 동네고양이들을 한번 지켜봐주면 어떨까. 동네고양이들 역시 항상 우리 주위에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니깐 말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안겨준 '희망'이와 '씨앗'이

글과 사진 조호순 <saynon@naver.com>

10여 년 전, 귀농해서 친환경 농사를 추구하던 우리 부부가 유산양을 키우기 시작한 건 4년 전부터이다. 유산양은 경사가 심한 지형에도 잘 적응하고, 거친 풀은 물론 나무껍질까지 먹을 수 있어 '가난한 자의 젖소'로 불리기도 한다.

처음에 우리가 유산양을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데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선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퇴비를 외부에서 사다가 쓰는 것보다 직접 풀을 먹여 키운 가축에서 퇴비를 얻고, 그 퇴비로 키운 농작물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이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하고 싶었고, 1년에 불과 몇 백만 원이 안 되는 농업소득을 올리는 가난한 소농 살림에 산양유로 조금이나마 수입을 보태고 싶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 3년간 유산양을 키우며 얻은 농업소득은 아직 한 푼도 없다. 부부 둘 다 썸이 느린 데다 마음이 모질지 못해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경제동물을 애완동물처럼 키운 탓이리라.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흔히 그렇듯, 희망이와 씨앗이도 새끼 때 잔병치레가 잦아 고생을 많이 했다. 유산양에게 가장 흔한 질병은 폐렴과 장염인데, 새끼 때엔 특히 위험해서 자칫 죽는 경우도 있다. 환절기엔 두 마리가 번갈

아 가며 기침과 설사를 했는데, 그럴 땐 보통 일반 약국에서 파는 시럽으로 된 어린이용 기침약과 집에서 만든 매실액기스를 먹였다. 전문적으로 유산양을 많이 키우는 농가에선 조금만 상태가 이상해도 바로 항생제와 지사제를 주사하곤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 독한 약을 쓰지 않았다. 다른 농가들에서 흔히 하듯 짐승의 몸에 직접 주사바늘을 꽂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가벼운 증상은 그 정도 조치로도 금방 좋아지곤 했다.

그러다 아이들이 막 한 살이 된 늦여름, 갑자기 희망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다. 수의사를 불러 물어보니 '요마비'가 왔다고 했다. 요마비는 모기를 매개로 해서 유산양에게 감염된 기생충이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하반신 마비가 되는 병이다. 예방을 위해선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이보맥'이라고 하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놔줘야 하는데, 모기가 한풀 꺾일 무렵이라 괜찮을 듯해서 주사를 한 달 걸렸더니 그만 희망이가 그 병에 걸려 버린 것이다. 뒷다리가 마비되어 바닥에 누워 있는 희망이를 본 수의사는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곧 죽을 거라며 도태, 즉 안락사를 권했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적어도 우리에게 희망이는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경험 많은 농가들에 수소문을 해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약을 구해 손을 덜덜 떨면서 직접 주사를 놔고,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이를 붙잡고 일으켜 똥오줌을 닦아내고 마비된 뒷다리를 마사지해줬다. 그러기를 몇 주나 했을까, 기적처럼 희망이가 뒷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상된 신경이 어떻게 다시 기능을 회복했는지 수의학에 문외한인 나로선 알 수 없고, 그저 동물 특유의 놀라운 회복력에 약간의 기적이 보태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뒷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지 자꾸만 주저앉는 희망이를 격려하며 매일매일 잠깐씩이라도 걸기연습을 시키고 나름대로 물리치료도 해주었더니,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엔 비록 다리를 절룩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걸어 다니며 풀을 뜯는 데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두 살이 된 희망이는 첫 출산에 무려 네 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았다. 유산양은 보통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 낳고 많아야 두 마리를 낳는데, 희망이는 마치 자신이 건강을 되찾기를 기다려준 우리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건강한 암컷 세 마리와 수컷 한 마리를 낳아주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올해,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 다른 농장에서 희망이 아들과 교환해서 데려온 젊은 수컷을 신랑으로 해서 희망이는 예쁜 새끼를 두 마리 또 낳았다. 모둠발로 경중경중 뛰어다니는 귀여운 새끼들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무렵, 우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이웃집 진돗개에게 희망이가 뒷다리와 유방을 심하게 물렸다. 뛰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고 살펴보니 날카로운 이빨에 찢기고 깊게 팬 상처가 여러 곳이었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느라 통통 불어 있는 한쪽 유방에선 상처를 통해 피와 하얀 젖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었다. 수의사는 이번에도 안락사를 권했다. 계속 나오는 젖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을 것이고, 유방 안쪽에서부터 감염이 일어나 패혈증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는 게 희망이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렸고, ‘희망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희망이를 간호하다가, 문득 자기 새끼를 애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희망이의 모습을 보았다. 피가 섞인 분홍색 젖을 차마 먹일 수 없어 새끼들을 따로 격리해 놓고 우리가 분유를 타서 먹이고 있었는데, 희망이는 상처가 무척 아플 텐데도 자리에서 일어나 울타리 너머로 자기 새끼들이 분유가 든 젖병을 게걸스럽게 빠는 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었다. 어쩐지 따뜻함과 슬픔이 반씩 섞여 있는 듯한 그 눈빛을 보고 나는 결심했다. 비록 희망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희망이에게 고통에 가득한 괴로운 시간만은 아닐 것이기에, 나는 희망이에게 갓 태어난 자기 새끼들을 바라보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 이후로 다른 일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매일매일 상처를 꼼꼼하게 소독하고, 다친 유방 안으로 감염을 막아

주는 항생 연고를 의료용 튜브로 짜 넣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이의 상처에선 감염이 일어나 고름이 가득했고,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눌러 고름을 짜낸 후 식염수와 소독약을 상처 안으로 흘려 넣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하루에 몇 번씩 희망이의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소독한 후 배고파 하는 유산양 새끼들에게 분유를 타 먹이는 게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러기를 한 달여, 마침내 흘러나오던 고름이 멈추고 상처가 아물었다. 그리고 통통 부어 있던 뒷다리도 날렵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비록 한쪽 유방밖에 남지 않았지만, 희망이는 새끼들에게 다시 젖을 주기 시작했다.

얼마 후 씨앗이, 그리고 희망이의 새끼 중 새봄이와 새짜이가 각각 한 마리씩 새끼를 낳았고, 처음에 희망, 씨앗 두 마리이던 유산양이 이젠 열한 마리가 되어 나란히 풀을 뜯는다. 새끼 다섯 마리가 어미와 같은 색깔의 목걸이를 하고 제 어미들 주위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선부른 결정으로 희망이 새끼들에게서 어미를 빼앗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유산양을 키운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우린 단 1원도 아이들에게서 소득을 얻지 못했다. 첫해는 아직 새끼라서, 이듬해는 희망이가 아파서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3년째엔 네 마리나 되는 새끼들을 희망이와 함께 돌보느라, 그리고 올해는 다들 새끼들에게 한창 젖을 먹고 있어서 정작 사람은 젖 한 방울 얻어먹지 못했다. 원래는 경제동물인 유산양이 우리 집에 와서 반려동물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이들이 느긋하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얻고 있으니.



고성 산불 화마가 휩쓴 현장 구호

지난 4월 4일,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까지 확산돼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재 발생 후, 가장 피해가 컸던 고성군청과 토성면사무소 관계자 그리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관과 소통하며 고통받는 동물들을 최대한 빠르게 구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월 6~7일, 첫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총 5차례 걸쳐 현장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동물에 대한 구조 및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견사와 사료도 함께 지원해 빠른 치유와 일상 생활의 적응을 지원했습니다.



강동구 '동물사랑걷기대회' 거리 캠페인 참석

5월 11일, 일자산 공원에서 강동구가 주최한 '동물사랑걷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강동구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길냥이 급식소 등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기로 익히 잘 알려진 행사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사랑하는 반려인들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회원분들을 만나고, 반려인 가족분들께 동물자유연대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부스에선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기 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 자원봉사

여러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뜻깊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에서 시행하는 '가볼까'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청소, 산책, 놀이, 미용 네 팀으로 나누어져 봉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 반응만큼 네이버 평점 5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평일이었지만, 많은 분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유기동물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준 값진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OWA(Open Wing Alliance) Global Summit 참여

OWA는 암탉들이 비좁은 케이지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케이지 프리 운동의 국제 연대체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도부터 케이지 프리 국제 연대체(OWA)의 멤버로 해외 단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단체들은, 국가별 케이지 프리 현황을 공유하고 케이지 프리를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중 한국은, 브랜드 달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기업인 <풀무원>의 케이지 프리 선언을 이끌어낸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입양동물의 날 행사

동물자유연대의 20주년을 맞는 대표적인 행사, '입양동물의 날'이 5월 22일 진행되었습니다. 입양 간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입양 가족 간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올해도 200여 명의 가족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입양 간 반려견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사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론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해 역시 후원사들의 지원 속에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Right!, 갤러리아' 콘서트의 파트너 단체

<한화갤러리아>가 지향하는 환경보호·생명존중·안전문화의 가치를 같이하는 파트너로 동물자유연대가 함께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가 5월 한 달간, 대전, 수원, 천안, 진주에서 진행한 콘서트에 초청받았습니다. <한화갤러리아>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콘서트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을 만나 동물자유연대를 알리고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 및 동물보호에 대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남 아산 누렁이 '살건마' 고발

동물자유연대는 충남 아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3년 동안 돌봐오던 개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오던 한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개를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월 22일, 동물 학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해 32,809명의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뜻을 모아준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육곰을 위한 '곰벤저스'의 해먹 제작과 선물

사육곰들은 야생의 습성을 박탈당한 채, 평생을 좁은 철창 속 뜰장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곰들이 놀이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해먹'은 동물자유연대가 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철창에 설치된 해먹만으로도 행동풍부화를 돕는 동시에, 복지를 조금이나마 증진할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마당에는 해먹을 만들기 위한 폐소방호스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만들어 다른 사육곰에게도 선물하고 하루빨리 사육곰들이 철창 밖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노량진 동네고양이 프로젝트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과 신시장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동네고양이를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살고 있는 동네고양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체 수를 조사와 포획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성화 수술과 질병 치료 후, 다시 제자리에서 아이들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입양이 가능한 어린 고양이들의 입양을 지원합니다. 노량진 고양이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해주세요. (동네고양이 서울연대와 중앙대학교 동아리 '냥침반'이 함께합니다.)



부산 구포 가축시장 철폐 잠정 협의

지난 5월 30일 부산 북구청과 구포 가축(개)시장 상인회가 폐업과 업종전환을 위한 잠정협약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최대 개도살 업체 집결지인 태평동 철거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얻은 성과로, 개식용 종식에 있어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식용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많은 시민과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물보호 활동의 큰 사건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구포 가축(개)시장의 조속한 폐업과 개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글과 사진 조은희 활동가

동물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표정이 바뀝니다. 돌보는 보호 동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한 몸짓과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눈빛은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뭐까?’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동물 친구들 표정 중에서도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들이 떠오르시나요? ^^



시안이 (집중)



삼순이 (경계)



흰둥이 (눈치)



쿠쿠 (이런)



평구와 나나 (산남)



봉희 (행복)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학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학대 사건 대응,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재입양, 개 식용 금지, 길고양이와의 공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장동물이 생태 고유의 본성과 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물복지 인식 확산 캠페인,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으로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실험동물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생체 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에게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기업에게는 대체 소재 개발 및 사용을 촉구해나가는 대중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동물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시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반대합니다.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쇼, 체험전시 등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 및 입법 활동을 전개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면 분들에게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기간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육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계좌 국민은행 546901-01-146642
예금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